

2014년도 연구제안서[1]

제목: 식품 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배경: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가격 정책은 식량생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농수산물의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 지지 노력이 미미한 반면 급등할 때에는 대량 수입으로 가격을 폭락시켜 농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TRQ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너무 큼으로 인해 자급노력이 힘을 잃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입 식품원료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나 서민물가잡기에 묶여 가공식품의 가격은 비현실적으로 낮아 식품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연구내용:

- (1)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 가공식품의 가격 관리현황과 문제점
- (3) 농어민 소득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 가격정책 제언
- (4)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식품 가격정책의 방향과 제언
- (5) 식품가격 합리화정책을 지원할 사회복지정책의 구현 방안

연구방법:

- (1) 연구팀 구성: 연구책임자 - 이철호 교수(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연구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공학부),
안병일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 이숙중 박사, 이꽃임 박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2) 연구기간: 2014년 1월 - 12월(1년 과제)
- (3) 연구비: 3,000만원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기대효과:

- (1)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가격정책의 원칙 수립
- (2) 수입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 (3) 세계트렌드에 맞는 식품가격 조정시스템 개발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4)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한 적정 식품가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2014년도 연구제안서[2]

제목: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와 잦은 기상이변, 동물성식품 소비증가, 식량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 대규모 가축질병의 발생 등으로 세계 식량사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식량 증산 가능성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와 거대 기업들의 특허권 요구로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기술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식량생산 방법의 고안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신기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종자돈(seed money)을 지원하려고 한다.

연구내용:

- (1) 특허에 묶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전자 조작기술
- (2) 기상이변(가뭄, 침수, 해수)의 피해에 견디는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3) 식량의 이용효율(가공, 저장, 소비)을 증진하는 신기술
- (4) 식량위기 해소에 필요한 새로운 생명공학, 생물학, 공학 개념의 정립

연구방법:

- (1) 개인 또는 단체의 연구계획서에 의한 공모
- (2) 연구기간: 2014년 1월 - 12월 (1년과제)
- (3) 연구비: 과제당 2,000만원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4년 9월

기대효과:

- (1) 과학자들의 창의적 노력을 고양
- (2)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3) 우리나라가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

작성일: 2013년 10월 22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